

社說

5·18 정치적 간극 여전 '진실'만이 갈등 치유

5·18광주민주화운동 제39주년 기념식이 빛 줄기 속에서도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정치인들이 대거 참석한 가운데 엄숙하게 거행돼 국민들 가슴속에 5월의 역사적 의미를 되새기는 계기가 됐다. 특히 문 대통령은 기념사에서 "공권력이 광주에서 자행한 야만적 폭력과 학살에 대해 대통령으로서 국민을 대표해 다시 한번 깊이 사과드린다"라고 말해 큰 위로가 됐다.

그러나 광주가 원했던 것과 달리 '5월'을 둘러싼 정치적 갈등은 더욱 증폭되는 양상이다. 자유한국당과 극우세력들이 5·18평화와 왜곡의 선봉에 선 상황에서 기념식은 또 하나의 대치선이 될 거라는 예상이 그대로 현실화돼 그저 씁쓸할 뿐이다.

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5월단체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광주시민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광주방문을 강행한다고 할 때 '행어나 전향적인 태도를 보이지 않을까' 하는 일말의 기대가 있었으나 한국당의 5·18에 대한 기본인식에는 전혀 미동조차 없어 보인다. 기념식이 끝나자마자 나경원 원내대표가 대통령 기념사를 꼬투리삼아 '반쪽자리 기념식' 운운하며 흡집내기에 급급하는 모습은 실망 그 자체이다.

진정으로 5·18이 우리나라 민주화운동의 성지로 생각한다면 5·18평화와 왜곡에 대한 사과와 5·18진상규명위원회 구성 및 5·18 특별법 제정에 동참하는 게 먼저인데, 지지층 결집을 위한 정치적 화법에만 매몰되는 것 같아 안타깝다.

문 대통령이 언급한 것처럼 '광주사태'로 불린 5·18이 광주민주화운동으로 공식 규정된 것은 노태우 정부 때이며, 김영삼 정부는 국가기념일로 지정했다. 대법원 역시 신군부의 군사 쿠데타부터 5·18에 대한 진압 과정을 반란과 내란죄로 판결해 주범들을 단죄했다.

그럼에도 아직도 5·18을 부정하고 모욕하는 망언들이 거리낌 없이 큰 목소리로 외치는 현실이 너무 참담하다

5·18 진상조사규명위원회가 하루 속히 출범해 5·18의 진실이 제대로 규명돼야 정치적 간극이 해소되고 갈등이 극복될 것이며 광주 시민의 명예도 살아날 것이다. 내년 40주년을 광주시민들에게 기쁨과 희망이 불타오르는 평화로운 기념식이 되길 간절히 바란다.

'도농상생의 장터' 로컬푸드 직매장 늘려야

지역농민이 생산한 신선한 농산물을 직거래를 통해 값싸게 구입할 수 있는 로컬푸드 직매장이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에게 인기를 끌고 있다. 로컬푸드는 중소농가의 판로 확대와 소득 창출 효과, 농업인의 자신감 증대, 지역경제 활성화 등 '일석삼조'의 성과를 올리고 있다.

농협이 로컬푸드 직매장 운영을 맡고 있어 농업인은 농산물 생산에 전념할 수 있고 소비자도 직거래하거나 제값을 받을 수 있어 귀농인과 청년농부들이 크게 반기고 있다.

현재 전남도에는 농협이 운영하는 26개소에 5천300여 농가가 참여하고 있다. 이 가운데 가장 모범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곳 가운데 하나는 화순 도곡농협 로컬푸드직매장이다.

2014년 개장한 화순 도곡농협 로컬푸드직매장은 주말이면 1일 방문 고객 2천명이 넘는 로컬푸드 명소를 자리잡고 있다. 특히 광주 등 다른 지역 고객이 80%를 차지한다.

로컬푸드를 납품하는 560농가는 소량 다품목으로 조직화해 당일 아침에 수확한 신선한 과채류와 잡곡, 가공식품 등 654개 품목을 판매한다. 올 들어 4월 말 현재까지 로컬푸드 판매 실적은 19억원이다. 연 매출액은 지난해(58억원)보다 크게 늘어난 전망이다.

고령으로 영농을 은퇴한 할머니들로 구성된 양정달마루골영농조합법인인 한과, 부각을 전통 방식으로 만들어 판매해 손주들에게 용돈도 주는 등 경제활동을 왕성하게 펼치고 있다. 베트남에서 시집 온 팜티투 씨는 애호박, 감자, 엽채류를 생산해 연간 4천500만원의 매출을 올리고 있다.

전남도는 중소농의 소득 향상과 로컬푸드 공급 기반 구축을 위해 올해 직매장을 35개소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올 하반기 광주지역과 시·군에 로컬푸드 직매장을 포함해 롯데슈퍼 광주점포 등지에 직매장 9개소를 신규 설치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김병원 농협회장은 퇴임 전까지 농가 소득 5천만원 목표를 달성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바 있다. 그는 특히 "수박과 복숭아 등 출하기에 '포리시업' 운동을 벌여 농가가 손에 쥐는 가격을 높이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농가소득을 증대하고 소비자에게 값싸고 안전한 농산물을 제공할 수 있는 '도농상생의 장터'인 로컬푸드 직매장을 더욱 늘려야 한다.

그래픽 뉴스

금값 꿈틀하자 1분기 금 수출 급증...수입은 줄어 대조

올해 들어 금 수입이 줄어든 반면 수출은 많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수입 감소는 전자기기 수출 둔화의 영향으로 산업용 금 수요가 줄었을 가능성이, 수출 증가는 금값 상승과 맞물려 중국과 홍콩으로 나가는 물량이 급증한 영향이 각각 거론된다.

19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1분기 비(非)화폐용 금의 상품수지는 2억70만달러 흑자로 집계됐다. 흑자 폭은 2012년 4분기(2억6천30만달러) 이후 6년 3개월 만에 최대다.

비화폐용 금이란 산업용으로 쓰이는 금을 비롯해 투자용 금과 등 민간에서 유통되는 금을 말한다. 금 수출입에 따른 흑자가 커진 것은 수입은 줄었지만 수출은 대폭 늘었기 때문이다. 1분기 금 수입액은 1억7천200만달러로 지난해 4분기(2억220만달러)보다 3천20만달러 줄었다. 반면 금 수출액은 3억7천270만달러로 전 분기(2억2천550만달러)보다 1억4천720만달러나 늘었다.

연초 금값이 오른 데다 수출물량 증가세 둔화에 스마트폰 등 각종 전자기기에 들어가는 산업용 금 수입이 일부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

1분기 이동전화기 수출물량지수는 59.09로 전 분기보다 18.2% 하락했다. 수출물량지수란 2010년을 기준으로 수출물량 추이를 보여주는 통계로 이 지수가 내렸다는 것은 그만큼 수출을 많이 하지 못했다는 뜻이다.

연도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12	3	4	1	2
'13	2	3	4	1
'14	1	2	3	4
'15	2	3	4	1
'16	1	2	3	4
'17	2	3	4	1
'18	1	2	3	4
'19	200.7	-228.1		

자료/한국은행

로컬 디자이너와 로컬 경제

시론



최형춘 전남신용보증재단 이사장 경영학 박사

나를 포함한 우리재단 직원들의 명함엔 '로컬 디자이너(Local Designer)'란 직함이 새겨져 있다. 이걸 보고 많은 사람들이 묻고 흥미로워 한다. 로컬 디자이너란 특별한 자격이 있는 것이 아니고 재단 직원들이 스스로 자임한 새로운 미션이다. 다가올 지방분권시대를 준비하기 위한 지역민으로서 자세이고 의연한 각오의 표현이다. 로컬 디자이너는 주제적으로 지역발전의 아이디어를 내고 그것을 실천해 나가는 인재로 지역을 바꾸는 사회운동가이기도 하다. 또한 스스로 지역 현장에 뛰어들어 지역민과 함께 지역의 문제를 해결해나가는 실천형 지역인재이다.

우리나라는 근대화를 시작한 이래로 지금까지 지방은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과 경쟁대상이 아니었다. 지방은 일차년도 없지만 사람도 없어 이제는 소멸을 걱정할 정도로 수탈당해왔다. 하지만 앞으로는 다르

다. 이웃 일본을 보면 나홀로 발전하던 도교가 심상치 않다. 젊은이들을 저임금으로 쓰고 버리는 불임도시가 되어버린 도교에 식상하여 지방으로 귀향, 귀촌하는 청년들이 늘고 있다. 최근 서울의 아파트가격 상승을 보면 젊은이들은 도저히 살 수 없는 불모의 도시가 되어버린 형국이다. 의식 있는 젊은이들은 좀더 여유로운 삶을 즐길 수 있는 지방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는 계기를 만들어 준 것이다.

이렇게 지방을 찾는 젊은이들을 스스로 찾아오게 하는 방법은 없을까? 그것은 바로 '매력 있는 로컬'이 되는 것이다. 매력 있는 로컬에는 사람이 모인다. 그렇게 모인 사람들은 다시 각각의 방법으로 지역을 더 매력 있게 만들어간다. 매력 있는 마을은 사람들을 불러 모으고 살기 좋은 동네를 만들고 새로운 일자리를 만든다. 지역의 매력은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과 그곳에서 일하는 사람들, 또 이들이 만들어내는 문화와 커뮤니티에서 비롯된다. 흥대거리, 가로수길, 경리단길 같은 사례이다. 결국, 지역은 사람이 만드는 것이라는 것을 이해한다면 지역민 스스로가 매력 있는 고향을 만드는 로컬 디자이너가 되어야 한다. 각자의 분야에서 창의적으로 생각하고 일하며 지역의 일원으로

서 어떻게 커뮤니티를 만들고, 이를 기반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로컬 디자이너의 대열에 참여하고 지역의 시민운동으로 확대해 나가야 한다. 도시학자인 리처드 플로리다 캐나다 토론토대 교수는 '지역 크리에이터들이 도시를 변형시킨다'는 주장을 한다. 지역의 미래는 로컬 디자이너들에게 달려 있다는 것이다.

로컬 경제는 로컬 디자이너가 추구하는 세상이다. 하지만 글로벌 경제와 로컬 경제는 다르다. 지방분권 자치시대에 걸맞은 로컬 경제(지방경제, 지역단위경제)의 해법이 나와야 한다. 대도시인 서울이나 도쿄의 경제와는 달라야 한다. 로컬 경제란 지역의 자생적이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로컬 푸드, 로컬 에너지, 로컬 상품, 로컬 화폐, 로컬 은행 등 모든 것이 지역으로 환원되고 재투자되는 경제이다. 또한 농촌을 내포하고 있는 로컬은 생태문명생존의 교두보라 할 수 있다. 생태신학자는 존 B. 갑 주니어는 인간의 문명이 사실은 멸망의 길에 접어들었다고 심각하게 진단한다. 그는 산업문명을 '생태문명'으로 전환하는 것이 그 해법이며, 그 방법으로 지역단위경제로의 급진적 전환을 제안한 바 있다. 로컬경제가 현대 문명의 위기에 대한 해법이라는 것이

다.

이런 로컬 경제는 '규모의 경제'보다 '밀도의 경제'를 추구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생활에 밀착된 서비스업이 경쟁력 있는 주요 산업이 될 수 있다. 공공 서비스 즉 의료, 간호, 보육, 사회복지서비스, 대중교통 등이 그런 직종이다. 이런 직종은 노동집약적 산업이기 때문에 많은 일손이 필요하며 인간관계가 큰 의미를 지닌다. 그리고 범용적이고 평균적인 기능을 지닌 인재들에게 적합하여 지역의 인재들이 생활의 여유를 가지고 일할 수 있는 직장이 될 것이다.

최근 고무적인 현상은 우리 지역에서도 수도권을 거부하는 젊은이들이 증가하고 있다. 고향에 머무르면 더 나은 경쟁 속에서 마음이 잘 맞는 친구들과 함께 살고 싶다는 생각을 갖는 밀레니엄세대들이 지역을 지키기 시작하였다. 지금은 시작이지만 지역민 모두가 지역을 행복 한 공간으로 만들어가는 로컬 디자이너로 거듭나고, 지역에 맞는 우리만의 로컬 경제를 찾아간다면 대도시가 부러울 것도, 비틀거리는 세계 경제 때문에 휘청거릴 필요도 없을 것이다. 지방이 지금은 어렵지만 그만큼 절박하고, 절박하기 때문에 본질에 충실할 수 있고, 이것이 촉박명의 위기에 대한 해법이라는 것이

현장칼럼



김중현 광주시 도시철도건설본부 재무과장

도시철도 2호선 건설, 구도심 활성화·도심균형발전 이끈다

하철 건설로 도시 활성화를 이룬 성공사례들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어디든 지하철이 들어하면 역세권 효과로 유동인구가 증가하고 상권이 형성되어 매출이 증가하는 등 지역경제가 활기를 띠게 되는 선순환 구조가 이루어진다.

세계적으로 유동인구가 많고 인기 있는 핫플레이스는 지하철역을 두고 있다. 뉴욕의 타임스퀘어, 도쿄의 하라주쿠, 중국 상하이의 푸둥신구, 영국 런던의 카나리워프, 독일의 브란덴부르크, 서울의 홍대거리 및 명동거리 등 세계적 관광지에는 반드시 지하철역 중심으로 성장했다.

세계 최대 규모 여행정보 사이트 '트립어드바이저(TripAdvisor)'는 '전 세계 국가에서 관광객이 해야 할 단 한 가지 일'을 소개하면서 한국에 가면 서울 지하철을 꼭 타야 한다고 했다. 그만큼 지하철은 도시를 알리는 데 꼭 필요한 교통수단이자 관광콘텐츠가 되었다.

서울 지하철 홍대역 입구에는 경의선 폐선부지와 정차역 등을 활용한 '경의선 책거리'를 조성하여 많은

은 관광객이 찾고 있다.

'경의선 책거리'라는 관광콘텐츠를 개발하고 발전시키는데 지하철역이 큰 역할을 했다고 할 것이다.

이런 사례들을 통해서 우리 광주도 도시철도 2호선 건설로 구도심 활성화와 새로운 관광콘텐츠로서의 역할 등 큰 기대를 하고 있다.

2004년 개통된 광주도시철도 1호선은 단일노선으로 승승장구했지만 지난해 말 기준으로 3.6%에 그치는 등 대중교통수단으로 한계가 있었으나, 광주도시철도 2호선은 시청·백운광장(~호천역)·남광주역·광주역·일곡·첨단·수원지구·시청을 양방향으로 순환하는 노선으로 구도심과 외곽 신도시 대부분을 연결함으로써 구도심으로 유동인구가 활발히 유입되어 구도심 상권 활성화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도시철도 2호선이 경우하는 백운광장, 양림동 인근에는 푸른길공원, 정음성신생생가, 평권마을, 오영계념각, 최승호 가족이 있으며 남광주역 인근에는 남광주 밤기차야시장, 동명동 카페거리 등 볼거리가 풍부한 문화콘텐츠가 자리 잡고 있다.

각을 하고 주저 말고 117, 112, 학교 전담경찰관을 통해 상담요청이 필수다.

아프리카 속담에 '한 아이를 키우는 데 온 마을 사람들의 관심과 손길이 필요하다'는 말이 있다. 모든 학생들이 행복한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학교 밖에서도 가정·학교·경찰 등 모든 사회 구성원들이 함께 나서야 할 것이다.

/이장규·담양경찰서 경무과

독자투고

학교폭력, 사회적 관심·공감대 형성으로 근절

우리나라 청소년의 폭력 문제는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며 특히 학교에서 학생들 사이에 벌어지고 있는 학교 폭력은 조직화되고 잔인하게 벌어지고 있다.

학기 초에 학생들 사이에 새로운 환경에서 눈치싸움이 치열하다. 주변 친구들이 바뀌면서 보이지 않는 신경전을 보이며 작은 것이 깊어지

면 큰 학교폭력으로 이어지게 된다.

최근에는 직접적인 폭행과 상해보다는 페이스북이나 라인, 채팅 등 온라인을 통한 성 관련 유형의 피해도 많이 나타나고 있다. 이는 학교에서 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언론에서도 학교폭력의 문제점과 실태에 대해 보도하고 있으며 기관 및 사회

각 계층에서는 학교폭력의 근절을 위해 대책 마련에 고심하거나 각종 시책을 추진 중에 있을 것이다.

이에 경찰에서도 아동, 여성, 청소년들을 위한 신고제인 '안전 드림'을 구축하고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그러나 경찰만의 적극적 추진에는 한계가 있을 것이다.

학교폭력은 예방도 중요하지만 이미 발생했을 경우 대처하는 법도 중요하다. 대다수의 피해 학생들은 어떤 경우라도 자신을 보호해 주고 있다는 생

각을 하고 주저 말고 117, 112, 학교 전담경찰관을 통해 상담요청이 필수다.

아프리카 속담에 '한 아이를 키우는 데 온 마을 사람들의 관심과 손길이 필요하다'는 말이 있다. 모든 학생들이 행복한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학교 밖에서도 가정·학교·경찰 등 모든 사회 구성원들이 함께 나서야 할 것이다.

/이장규·담양경찰서 경무과

교통의 모든것은 efine(이파인)을 기억하세요

현장에 근무하다보면 하루에도 몇 차례 자신의 교통별점이 얼마인지, 면허 정지기간이 경과 됐는지, 최근 무인단속 기에 속도위반으로 단속된 사실이 있는지 등을 문의하는 경우가 많다. 이런 궁금증을 해

결할 수 있는 시스템이 바로 efine(이파인)시스템이다. 이파인 시스템이란 경찰청 주관으로 2012년에 '이파인(www.efine.go.kr)'이라는 홈페이지를 개설한 것으로 본인의 공인인증서로 로그인만 하게 되면

교통범죄금, 과태료 조회 및 납부, 무인단속 내역 조회, 벌점 조회, 착한운전 마일리지제도 신청 등 다양한 조회 및 납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이파인 홈페이지의 문자 알림서비스신청을 이용해 내 휴대폰 번호를 등록해 놓으면 무인카메라 단속시 휴대폰 문자를 통해 단속 사실을 통지 받을 수 있는 등 교통

관련 대부분의 민원을 방문 없이 직접 처리할 수 있는 획기적이고 편리한 제도다. 이제는 주기적으로 이파인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누적인 벌점은 얼마이며, 과태료는 얼마인지 교통관련 모든 정보를 확인하고 대처를 할 수 있겠다. 교통의 모든 것! 인터넷 검색창에 '이파인'만 치면 된다. /송병학·서부경찰서 교통안전계

\* 외부필자의 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독자투고를 기다립니다. 하고싶은 이야기, 사진 등을 보내주세요.

광주매일신문 1991년 11월 1일 창간 http://www.kjdaily.com

회장 馬亨列 사장·발행·편집인 南成淑 주필 朴俊洙 편집국장 吳星洙

(우)61636 광주광역시 남구 천변차로 338번길 16 대표전화 (062)650-2000 구독신청·배달안내 (062)650-2022

편집부 650-2090	지역특집부 650-2060	광고문의 650-2099	FAX
정정부 650-2030	체육부 650-2065	광고국 650-2072	광고국 650-2016
경제부 650-2050	사진부 650-2080	경영지원국 650-2010	편집국 650-2017
사회부 650-2040	논설실 650-2006	기획사입국 650-2079	입무국 650-2019
문화부 650-2067	서울지사(02) 786-9488	입무국 650-2020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2002년 4월 30일 등록, 등록번호: 광주가10(日) \*구독료 월 10,000원 1부 500원